

◆ 북미

- 일본, AIG 자산의 유력한 매수자로 물망
- 워싱턴 뮤추얼 인수의 호기를 살피고 있는 美대형 상업은행

◆ 유럽

- Swiss Re, 리먼브라더스 & AIG 사태로 손실이 불가피
- 로이즈TSB은행, 영국 최대모기지업체 HBOS를 인수

◆ 일본

- 美AIG 구제금융 지원, 일본 보험업계 재편에 영향?
- 미국, 과거 일본의 불량채권 처리에 주목

◆ 중국

- 리먼파산, 중국보험회사 자산은 안전한가
- AIG, 중국고객자산 안전하다 발표, 보감위는 계속 주시

◆ 국제금융시장 주요 지표

【 북미 】

□ 일본, AIG 자산의 유력한 매수자로 물망

- 펀드매니저와 분석가들은 자본이 충분한 일본의 보험사와 호주의 최우량 보험사 등이 AIG가 자산 매각을 하는 경우 유력한 구매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함.
- 그러나 중국은 자국 내의 시장상황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관계로 AIG의 자산 인수에 좀 더 신중한 자세를 취할 것이라고 언급
- 월스트리저널에 따르면 보험영업부문의 매각 제의가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질지는 분명치 않으나, 현재 100여 국가에서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Transatlantic Holdings(재보험그룹)의 인수자로는 Swiss Re와 Munich Re가 유력한 것으로 파악됨.
- 일본의 경우 보험시장이 이미 정체상태에 도달해 있으며, 한편으로는 자본이 초과될 정도로 충분한 자본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일본시장 보다는 성장 가능성이 점쳐지는 해외시장에 관심을 갖고 있음.
- 일례로 토교해상은 지난 7월에 손보사인 Philadelphia Consolidated Holding을 47억 달러에, 영국 런던에 소재한 Kiln사를 7억8천9백만 달러에 각각 인수하였고, 니혼생명은 지난 8월에 4억7천4백만 달러의 해외투자 계획을 발표함.
- 올해 초 경쟁사(Australia Group) 인수시도에 실패했던 호주 최대 보험사인 QBE Insurance Group은 전 세계에 해외지사를 갖고 있는 AIG의 네트워크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으며, 호주 내에서는 유일하게 AIG의 자산 매각시 인수능력을 갖춘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음.
- 국가에 의해 경영되고 있는 중국보험사들은 최근 해외 경쟁사들의 주식을

적극적으로 구매했던 것과는 달리 해외보험사의 완전 인수는 자칫 손실만을 초래할 수 있으며, 게다가 그들 스스로도 자국의 보험금 지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AIG 자산을 인수하기에는 자본이 충분치 못하다는 설명임.

- 상해종합지수가 연초에 비해 63%가 하락하는 등 중국 내의 경제상황 악화는 중국생명, 핑안보험, PICC손보 등 우량보험사의 투자수익을 급감시킴.

- o 중국생명은 글로벌경제가 불안정한 가운데 해외투자에 보다 신중한 행보가 필요하다고 언급했고, 벨기에/네덜란드계 보험사인 Fortis의 5%지분을 지난해 26억7천 달러에 구매하였으며 추가로 Fortis 자산관리 영업의 50%를 33억3천 달러에 인수하고자했던 핑안보험은 정부 당국의 거래연기 명령을 받아놓은 상태임.

(Reuters, 9/17)

□ 워싱턴 뮤추얼 인수의 호기를 살피고 있는 美대형 상업은행

- o 대형상업은행인 JPMorgan Chase, Citigroup, Bank of America, Wells Fargo가 美 최대 저축/대부조합인 Washington Mutual의 여러 영업부문 중 하나의 인수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부관계가 밝힘.

- * Washington Mutual은 미 최대 저축/대부조합으로서 워싱턴주 씨애틀을 기반으로 소매 금융, 저축, 대부, 모기지보험, 모기지생명보험, 자연재해특종보험을 포함한 일반손해보험의 업무를 영위하고 있음.

- o 상업은행들은 신용경색으로 인한 인수 및 파산이 진행되면서 자구책의 일환으로 사업의 규모를 키울 필요가 발생

- “현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은행의 값어치가 저하된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은행이 인수에 성공했다는 사실은 시장에서 그 만큼 자신감이 증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Harris Private 은행의 CIO가 논평함.

- 또한 현재의 금융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美정부가 구제 금융을 포함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이 발표되었지만 기업의 자발적인 인수·합병은 美정부의 어깨를 가볍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美정부는 파산 없는 인수 합병을 적극 권장 하고 있음.
- 한편, Washington Mutual의 시장가치는 연초대비 85%가 감소하였으며 현재 2300여개의 지점의 1천4백3억 달러의 소매저축으로 인한 예금이자 지급으로 인해 곤경에 처해 있다고 내부 정보가 나도는 가운데 향후 2년 반 동안 손실이 19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Washington Mutual의 추정을 고려할 때 인수희망자들은 모기지와 연계된 손실을 넘겨받지 않는 조건을 제시할 것으로 예측됨.
- Washington Mutual의 최대지주인 TPG社는 매각에 성공할 경우 TPG社에 지불해야 할 15억 달러의 지급을 면제해주기로 제시함에 따라 Washington Mutual의 매각 가능성이 한결 높아지게 됨.
 - Washington Mutual은 지난 4월 JPMorgan의 인수의사를 거절한 후 TPG社로부터 70억 달러의 자금유입을 시행하였음.
 - TPG社로서는 Washington Mutual의 유동성을 최대한 증대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힘.
- 인수합병 에널리스트에 따르면 Washington Mutual 인수는 JPMorgan에 가장 유리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음.
 - Washington Mutual은 미서부와 남동부 지역에 대다수의 지점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은 전략적으로 볼 때 JPMorgan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언급

(Bloomberg news, 9/18)

【 유럽 】

□ Swiss Re, 리먼브라더스 & AIG 사태로 손실이 불가피

- 유럽 금융전문가들은 이번 리먼브라더스(Lehman Brothers)와 AIG(American International Group) 사태로 미국식 금융시스템 불안감이 고조됨에 따라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고 평가하고 있음.
 - 미국 투자은행(IB)인 리먼브러더스의 파산보호 신청 소식이 전해진 지난 15일 유럽 주가지수가 폭락한 가운데 보험업종과 은행업종이 각각 6% 이상 하락했으며, 보험사인 스위스리(8.1%)와 푸르덴셜(9.3%), 약사(8.5%)의 주식도 크게 떨어졌음.
- 이에 스위스리(Swiss Re)는 리만브라더스에 대한 익스포저(exposure)가 약 5천만 스위스프랑이라 밝혔으며, AIG의 익스포저는 약 2억 스위스프랑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전함.
 - 스위스리는 최근 발생한 세계 금융시장 위기가 전례 없는 최악의 상황이라며, 리먼브라더스와 AIG의 익스포저에 대한 주주들의 계속되는 문의로 인해 이와 같은 정보를 제공하게 된 것이라 밝힘.
- 스위스리는 세계 2위(보유보험료 기준)의 재보험회사로 AIG그룹의 재보험 회사이며, 동시에 AIG가 발행한 각종 금융상품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남.
 - 16일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eral Reserve Board)에서 발표한 뉴욕의 연방준비은행이 AIG에 대해 유동성 기금이 850억 달러로 확대되면서 스위스리의 익스포저 추정액은 약 2억 스위스프랑(기존 재보험 계약은 제외)으로 시산된다고 밝힘.
 - 이 같은 금액은 투자와 신용재보험, CDS(신용디폴트스왑) 순매입 또는 순매각, CDS 포트폴리오, 기타 부문의 익스포저가 포함되어 있으며, CDS와 관련하여 3억6,200만 스위스프랑의 자산상각으로 스위스리의 2분기 이익은 5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Swiss Re News Release & Reuters, 9/17)

□ 로이즈TSB은행, 영국 최대모기지업체 HBOS를 인수

- 지난 18일 영국의 최대 모기지업체인 할리팩스스코틀랜드(HBOS:Halifax Bank of Scotland)은행은 로이즈TSB은행에 전격 매각되었으며, HBOS의 매각가는 122억 파운드(주당 232펜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영국 에딘버러(Edinburgh)에 거점을 두고 있는 HBOS은행은 영국의 주택시장 침체 및 모기지 시장의 불황으로 런던 금융가에서는 파산 1순위로 지목되어 왔음.
 - 또한, HBOS는 자산의 상당부분이 리먼브라더스(Lehman Brothers)와 연계되어 있어 리먼의 파산신청으로 인해 고스란히 그 손실을 떠안을 처지로 전락하면서 전격적인 매각에 합의한 것으로 나타남.
- HBOS는 영국 모기지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으로 3,350억 파운드 규모의 주택대출시장 영업을 영위해 왔지만 올해 상반기 언더라이닝 세전수익이 14억 5,100만 파운드를 기록하면서 전년동기대비 51% 감소하는 등 경영 위기를 겪어 왔음.
 - HBOS의 주가는 최근 6일간 308.5펜스에서 88.0펜스(17일자 기준)까지 떨어지는 등 절반 이상이 떨어졌으며, 이에 국제 신용평가사인 피치(Fitch)와 스탠더드앤amp;푸어스(S&P)는 지난 16일 HBOS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였음.
- 양사는 이 같은 합병을 통해 2,300만명이 넘는 고객을 관리하는 영국 최대 저축은행(영국모기지 시장 28%를 차지)으로 거듭나게 되었으나,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 구조조정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입장임.
 - 로이즈TSB의 최고경영책임자인 에릭 대니얼스(Eric Daniels)에 따르면, 인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산매각 계획에 따라 HBOS의 직원 40,000명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 양사의 3,000여개(HBOS:1,100개, 로이즈TBS 1,900개) 지점 가운데 700여개 지점이 폐쇄될 것이라고 덧붙임.

(Scotsman.com & Bloomberg, 9/19)

【 일본 】

□ 美AIG 구제금융 지원, 일본 보험업계 재편에 영향?

- 미국의 연방준비이사회(FRB)가 AIG의 구제금융을 결정하여 파산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막았으나, 향후 AIG의 사업 매각을 포함한 경영재건계획이 추진될 전망이어서 일본에서 영업 중인 AIG 관련 생명 및 손해보험회사의 일부 매각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됨.
- 일본 보험업계내에서는 「우량한 일본 내의 AIG 관계 보험회사의 매각이 검토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AIG의 움직임이 일본 보험업계의 재편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확대되고 있음.
- 현재 미국의 AIG는 일본에서 알리코재팬, AIG스타생명, AIG에디슨생명, AIU보험, 아메리칸흙 등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일본 최초의 외국계 생명보험회사로 1973년에 설립한 알리코재팬은 일본에서 4위의 수입보험료 규모를 유지하고 있음.
- 이 가운데 AIG 계열의 일본의 3개 생명보험회사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인수는 현실적인 대안은 아니나 규모가 적은 아메리칸흙 등 손해보험회사의 행방에 는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 미국의 공적 관리에 들어가는 미국 AIG의 미래 경영 자체가 유동적이므로 곧바로 구조조정에 들어갈지에 대해서는 불투명하지만 일본의 손해보험업계는 「아메리칸흙은 통신판매 전문 자동차보험회사이므로 매력이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음.
- 손보업계에서는 「토쿄해상 등 통신판매회사를 소유하지 않은 대형 손해보험회사가 인수할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라는 소문이 확산되고 있음.

(산케이신문 9/18)

□ 미국, 과거 일본의 불량채권 처리에 주목

- 미국에서 불량자산을 매입하는 새로운 처리기관의 설립이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거품경제 붕괴 후 불량자산을 매입하는 **정리회수기구**와 **산업재생 기구**를 설립하여 불량 채권을 성공적으로 처리했다고 평가받고 있는 일본의 경험에 대해 미국은 공적 자금 활용의 사례로 주목하고 있음.
- 일본의 정리회수기구와 산업재생기구는 1980년대의 불량채권 처리로 활용된 미국의 정리신탁공사(RTC)를 모델로 하였다고 함.
 - 정리회수기구는 예금보험기구가 전액 출자하는 국책회사로서 1999년에 설립되었고 종전의 주택금융전문회사나 파산 금융기관의 불량채권은 물론 추가적으로 건전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채권을 매입하는 기능하는 것이 특징임.
 - 은행이 대손충당금을 쌓는 담보 처리에 머무르는데 반해 정리회수기구는 실제로 채권을 회수하여 불량 채권 그 자체를 없애는 실질 처분을 시행하는 등 금융 시스템의 안정화를 도모하였음.
- 한편, 일본의 산업재생기구는 불량 채권 처리와 기업 재생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3년에 출범하여 재생기구가 인수 지원회사에 출자하는 것을 전제로 정리해고를 추진함.
 - 약 1조엔을 투자하고 가네보(화장품회사)나 다이에(유통회사) 등 합계 41건의 기업 재생을 지원하였음
 - 5년간의 한시 조직이었지만 일본에 기업 재생 업무를 안정화시키는 등의 성과를 남기고 2007년에 해산함.
- 그러나, 일본은 주로 대형 부실로 인하여 경영이 악화되어 금융기관의 불량 채권이 확대된 반면, 미국은 주택대출채권을 증권화해 다양한 투자자에게 판매했기 때문에 불량자산의 실체가 파악되기 어려운 차이가 존재함.

(FujiSankei Busines / 9/10)

【 중국 】

□ 리먼파산, 중국보험회사 자산은 안전한가

- 보험업계는 자산운용 해외진출에 있어서 매년 은행에 이어 뒤늦게 투자에 뛰어든 투자 덕분에 손실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고 전함.
- 이는 중국 빅3 보험그룹인 중국생명(中國人壽), 중국핑안(中國平安), 중국태평양보험(中國太保)과 홍콩 H주식시장에 상장된 인민보험공사(人保財險), 중국국제보험(中保國際) 등 5개 보험회사가 지난 주 파산한 미국의 리먼브라더스 관련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최종 확인되었기 때문임.
- 하지만 메릴린치나 AIG 관련 채권 보유에 있어서 빅3 보험사는 전무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홍콩 H주식시장에 상장된 두 회사의 상황은 약간 복잡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인민보험공사의 경우 홍콩 H주식시장 상장 당시 AIG가 인민보험공사 주식 9.9%를 매입하면서 대주주로 기록된 사실이 있긴 하지만 인민보험공사 담당자는 대주주라는 사실 이외에 채권 채무와 관련해서는 AIG와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다고 밝힘.
- 중국국제보험은 리먼브라더스 관련 채권이나 파생상품은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메릴린치나 AIG 관련 주식, 채권 보유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함으로써 보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의심 받음.
- 한편, 중국 정부가 허가한 보험회사의 해외투자 한도는 중국생명, 중국핑안이 각각 전년도말 보유자산의 2%, 15%로 나타나 보유자산 규모로 계산할 경우 각각 240억 위안과 680억 위안 규모이며, 중국태평양보험은 금년 하반기 홍콩 주식시장 상장 후 해외투자 허가를 취득할 계획이었음.

(중국증권보, 9/18)

□ **AIG, 중국고객자산 안전한다 발표, 보감위는 계속 주시**

- 세계 최대 보험그룹 AIG(American International Group)가 파산위기에 몰리면서 중국 내 AIG 자회사에 대한 보험소비자의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으나, 9.16(화) 미연방준비은행이 2년간 약 850억 달러에 이르는 공적자금 투입을 결정하면서 다소 안정되가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음.
- 이에 AIA 상하이분공사(上海分公社) 관계자는 제일재경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상하이 시장의 반응은 차분한 편이다. 미국 모회사의 위기 상황에 대한 문의는 있으나, 보험계약을 해약하겠다는 소비자는 없었다. 중국 AIA의 지불여력은 충분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AIU 관계자 역시, "중국 내 법인은 중국 국내법에 따라 지급여력을 갖추고 있으며 모회사와는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없을 것이다. 더군다나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로 어떠한 경우에도 소비자의 권리는 지켜지게 될 것"이라고 전함.
- 이에 중국 보감위도 미국 금융시장의 변동상황을 수시로 체크하면서 AIG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중국 내 AIA(생명보험)와 AIU(손해보험)에 대해, 미국 모회사의 위기로 인해 중국 내 소비자들이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을 설명토록 조치함.
- 한편, 지난 2003년 10월 미국 AIG는 5년 동안 매각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중국인민보험 주식 9.9%를 홍콩 H주식시장을 통해 매수했으며 이 주식은 다음달 보호예수가 풀리는 것으로 알려짐.
- 이에 따라 유사시에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보감위가 나서서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힘.

(제일재경일보, 9/18)

【 국제금융시장 주요 지표 】

구분		07년 말	08.9.12(금)	08.9.19(금)	전주대비
금리 (%)	韓 국고채(3년)	5.74	5.66	5.80	0.14
	美 10년국채	4.03	3.73	3.55	-0.18
	英 10년국채	4.51	4.60	4.41	-0.19
	日 10년국채	1.51	1.54	1.48	-0.06
주가	韓 KOSPI	1,897.13	1,477.92	1,455.78	-1.5%
	韓 KOSDAQ	704.23	466.91	446.46	-4.4%
	美 DJIA	13,264.82	11,421.99	11,388.44	-0.3%
	美 Nasdaq	2,652.28	2,261.27	2,273.90	0.6%
	英 FTSE100	6,456.90	5,416.70	5,311.30	-1.9%
	獨 DAX30	8,067.32	6,234.89	6,143.42	-1.5%
	佛 CAC40	5,614.08	4,332.66	4,324.87	-0.2%
	日 Nikkei225	15,307.78	12,214.76	11,920.86	-2.4%
	中 상해종합	5,261.56	2,079.67	2,075.09	-0.2%
	대만 가권	8,506.28	6,310.68	5,970.38	-5.4%
	홍콩 항셱	27,812.65	19,352.90	19,327.73	-0.1%
환율	원/달러	938.20	1,108.50	1,139.00	30.50
	원/100엔	833.33	1,032.20	1,087.49	55.29
	엔/달러	112.58	107.32	107.06	-0.26
	달러/유로	1.4722	1.4168	1.4385	0.02
	위안/달러	7.3041	6.8440	6.8345	-0.01